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특별세션

한마음과학 'A to Z'

한마음과학의 길



황수경 교육실장
한마음과학원

황수경 한마음과학원 교육실장은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한마음과학의 길'을 주제 발표했다. 황 교육실장은 한마음과학원의 역사와 비전, 실천 과제 등을 소개했다.

황 교육실장에 따르면 한마음과학원은 1996년 대행 선사가 설립한 한마음선원 부설 연구 및 교육 전문기관이다.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일체의 근본이 한마음이며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는 한마음의 원리'를 인문·사회·자연·공학·교육·의학 등 다양한 전문 영역과 학문 분야에서 실증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황 교육실장은 "한마음과학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며 통찰과 직관, 그리고 지혜와 소통을 추구한다"면서 "한마음과학원이 추구하는 실현가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만물만생이 한마음을 바탕으로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대행 선사 가르침 어떻게 가르칠까

캐나다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예비 연구



글렌 최 교수
세네카칼리지

글렌 최 세네카칼리지 교수는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캐나다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예비 연구'를 주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토론토 응용불교센터(TCAB) 불교 상담 과정의 집단적 연구 사례를 활용해 "캐나다 불교 수행자들에게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한 설명, '관법'이라고 부르는 대행 선사의 독특한 수행방법에 주목하고 수용전념치료(ACT) 모델에서의 수용, 탈융합(defusion), 가치(values)와 인지행동요법(CBT) 모델에서의 재구성(reframing)과 같은 개념들이 접목되면 선사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수행자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근심거리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불성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강연

다양성 존중, 전통 종교가 수호할 덕목

글로벌 연결 시대 인간 존엄성·개인 자유 수호

뉴미디어 범람, 문화 평준화 유도
비판 수용 못하고 편향 여론 심화
종교, 획일화 아닌 다양성 중시해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주한 대사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됐습니다. 연결성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폭 넓게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반면, 비판적 담화와 통찰이 담긴 논제들은 약화됐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때이고, 이는 전통 종교들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주한 대사는 9월 23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글로벌 연결 시대에 인간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 수호: 문화 평준화에 직면한 인류에게 자원이 되는 종교 전통'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창세기〉를 소개하며 "지구촌은 경작을 통해 살아가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이를 벗어났고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봉착돼 있다"고 했다.

그가 꼽은 위기 중 하나는 IT산업 발전 결과물인 '글로벌 연결성'의 폐해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가 담론을 저하시키고 편향적 여론과 정치적 양극화를 조성하며 문화를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향 여론과 정치적 양극화의 예로 아키바 토르 대사는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내전을 들었다.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반전 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시위는 이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테러로 전위됐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유럽 거주 북아프리카, 터키인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로 유대인 혐오가 확산됐다"면서 "이후 이런 혐오는 유럽의 극우화로 전환됐다. 적지 않은 유럽 국가가 권위주의·전체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획일화된 사회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세기〉11장 바벨탑 이야기를 예를 들었다. 그는 "이들은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지향하며 하늘에 오르는 탑을 쌓았지만, 결국 무너졌다. 하나님이 획일된 언어와 문화를 원치 않은 것"이라며 "하나님은 인간이 주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길 원했다. '다양성 존중'은 전통 종교 모두가 가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각각의 개성을 존중받는 문화를 종교가 이끌어야 한다. 이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세션4 관법 수행과 소통

번역으로 대행 선사 가르침 전하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소통 가교 구축



고효림 통번역사
한마음선원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

한마음선원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효림 통번역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전문 번역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소통의 가교 구축'을 주제 발표했다.

고 통번역사는 "번역의 관점에서 명확한 텍스트를 전달하는 것은 원문을 해독하고 대상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대행 선사의 다층적이고 심오한 법문을 전할 때는 특히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의도·설법 방식·유머감각과 불교사 및 한국사적 측면의 사회문화 특성을 살피고 번안·보상·압축·명시화·생략·바꿔 쓰기·음차역 등의 번역 기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결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 통번역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행 선사의 설법에 대한 자막 개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바를 대중에게 소개했다.

주인공 관법 쉽게 접근하려면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지표 개발



유정오 교사
이반성초등학교

유정오 이반성초등학교 교사는 9월 25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4에서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지표 개발'을 주제 발표했다.

유 교사는 대행 선사가 주창한 주인공 관법 수행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관법 수행 지표를 개발했다. 연구는 대행 선사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담긴 법문 원전인 〈허공을 걷는 길〉에 주목했고, 대행 선사 법문 원전에서 관법 수행 관련 법문을 고찰해 수행 예비 지표를 추출했다. 지표 타당성을 검증할 전문가 패널을 한마음선원 사중 스님 102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델파이와 의사결정계층분석을 통해 타당화 및 중요도 평정 과정을 거쳐 총 17개의 관법 수행 지표를 개발했다.

유 교사는 "대행 선사 법문 원전에 기반하고 전문가 패널의 타당화 및 중요도 평정 과정을 거쳐 관법 수행 길잡이가 될 지표를 개발했다"고 자평했다.

세션5 공생과 사회적 실천

채식, 인본주의 불교 정신 발현

전염병 시대의 부처님 가르침



치엔테 린 소장
츠지대 종교인문연구소

치엔테 린 대만 츠지대 종교인문연구소장은 9월 25일 진행된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전염병 시대의 부처님 가르침: 츠지(慈濟)의 채식주의 운동'을 주제 발표했다.

논문에서 치엔테 소장은 츠지재단 설립자 청옌 스님이 코로나19 시대에 설한 가르침과 채식주의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청옌 스님은 자연을 존중하고 지구를 사랑하며, 재난 속에서 교훈을 얻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전염병 예방과 재난 구호에서 대중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식주의를 장려해 왔다.

치엔테 소장은 "채식주의 식단은 마음을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친절과 연민의 마음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채식주의자가 되어 도덕적 수양을 통해 전염병에 대응하는 것은 불교의 업설과 인본주의 불교 정신을 모두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세션6 마음과 의학, 건강한 삶

마음 통한 치유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

암 치유를 위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



장미란 연구원
연세대 의과대학

장미란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원은 9월 25일 진행된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세션6에서 '암 치유를 위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김미지·김종훈·김주현·이준엽 한마음과학원 연구원도 참여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돼 있고 1초에 380만개의 세포를 교체하며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다. 암세포 역시 우리 몸에서 하루동안 생겨나고 없어진다. 최근에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기전을 밝힌 연구도 보고됐다.

장 연구원은 "현대 의학의 암 치료법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이 수 십 년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물질적인 치료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생명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뿌리와 같은 각자의 근본 주인공이 있고 그 근본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한 대행 선사의 법문을 상기시킨 장 연구원은 "마음-육체 연결(mind-body connection)과 신체 건강의 잠재적 관련성 및 효과가 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암 환자에게 마음챙김이나 요가를 통한 마음 조절을 시행했을 경우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마음을 통해 육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생명의 근본 마음인 한마음에다가 모두 놓으니 근본끼리 전부 주고 받는다",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둘이 아니게 오고 감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대행 선사의 법문에 기인한다는 게 장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신경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5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의 두피 사이에 메시지를 보내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뇌 대 뇌(brain-to-brain)' 통신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움죽거리는 걸 알게 되면은 병이 낫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둘 아니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과학적인 사실이 그대로 심성과학이다"라고 설한 대행 선사의 법문은 향후 나아갈 길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장 연구원은 "우리 몸의 세포가 마음과 연결돼 끊임없이 협력한다는 인식으로 암 치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나, 진정한 리더십 '근원'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진정성 리더십의 가능성 연구



김영래 연구위원
한마음과학원

김영래 한마음과학원 연구위원은 9월 25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진정성 리더십의 가능성 연구'를 주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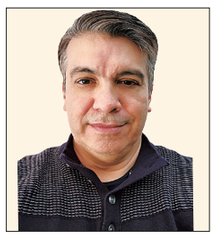
김 연구위원은 "현대사회는 진정성 있는 리더를 요구하지만, 존재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은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서구에서 개발되고 있는 진정성 리더십의 이론모형을 '헤민슬리(Tana Heminsley) 모델'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루소와 프로이트, 융, 하이데거의 철학사상에서도 리더십 모형을 고찰했다.

김 연구위원은 '헤민슬리 모델'의 한계점으로 '참나'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을 꼽았다. 그는 "주인공을 참나로 삼을 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나와 다른 대상으로 분별되지 않는다"면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나와 남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인공 관법, 신체·정신에 긍정적 영향

붙들면 죽고, 놓으면 산다



리까르도 다니엘 블랑꼬 의사
아르헨티나 의료협회

아르헨티나 의료협회 소속 의사인 리카르도 다니엘 블랑코는 9월 25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6에서 '붙들면 죽고, 놓으면 산다: 관 수행법, 마음-신체 의학과 정신, 신경, 면역, 내분비학적 영향'을 주제 발표했다.

그는 참선 수행을 △초월 인식과 경험의 융합을 지향하는 주의력 유형 △재평가, 관점 수용 및 자기 설계를 목표로 하는 건설 유형 △자아 탐구와 통찰력을 추구하는 해체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참선은 서로 다른 뇌의 영역과 인지 과정에 관여하며 심리, 신경, 면역, 내분비, 후성유전계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주인공 관법에 대해 블랑코 씨는 "이 수행의 기본은 우리의 근본 마음 또는 주인공에 대한 완전한 믿음,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믿음, 조건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주인공 관법 수행은 심리, 신경, 면역, 내분비 및 후성유전계에 걸쳐 예방 및 재생 측면에서 폭넓게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진정한 나', 의식 너머 있다

들이고 내는 한자리



한스욕 에플레 교수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한스욕 에플레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교수는 '들이고 내는 한자리: 의식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을 주제 발표했다.

에플레 교수는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의 저서 〈제1철학에 대한 성찰〉를 통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늘날까지 의식연구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데카르트 이후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현실을 두 개의 영역으로 엄격하게 분할하는 이원론을 거부했다. 특히 현대 과학자들은 이원론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연과학이 기술하는 물질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라고 주장한다. 에플레 교수는 '진정한 나'는 모든 의식의 너머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의식의 근간인 '진정한 나'는 의식의 내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서 "1인칭 경험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경험의 핵심인 '진정한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자아성찰적인 1인칭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